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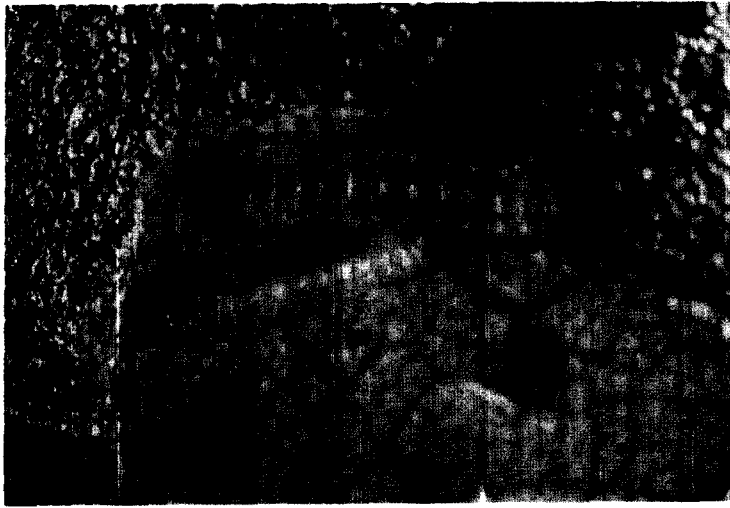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7,8월의 해충(XIV) (은무늬굴나방)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은무늬굴나방의 침입을 받은 피해잎.



피해잎내의 유충.

은무늬굴나방은 잎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피해가 심하면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낙엽이 된다.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수세가 쇠약하여지고 조기낙엽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게 되는데 근자 기주식물인 자작나무 조림의 증가로 피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분 포 : 한국, 일본, 유럽.

■ 가해수종 : 자작나무, 뱃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 가해상태 : 유충이 잎 뒷면으로 침입하여 표피와 엽육사이를 선상으로 가해하므로 잎표면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잎 뒷면에는 옅은 녹색의 선이 보이는데 이때가 피해 초기이다. 피해가 진전되면 수포(水抱)와 같은 옅은 녹색의 반점이 생기며, 유충이 점상으로 엽육을 가해하여 잎의 표면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것과 같은 흰 점이 생기고 환부가 점차 갈색으로 변색되어 마치 약해를 받은 것과 같이된다.

■ 형태 : 성충의 몸길이는 약 5m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10mm내외이며 광택이 있는 은백색의 작은 나방이다. 촉각은 몸길이의 1.5배 정도이고 암흑색이며 기부가 팽배되어 있다. 앞날개는 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1개의 둥근 흑색 반점이 있다. 알은 유백색이며 구형이다. 유충의 몸길이는 5mm이고 체색은 황갈색 또는 담록색이며 배끝이 가늘다. 몸은 마디사이가 잘록하고 마디에는 몇개씩의 긴털이 있다. 번데기는 원추형으로 끝이 가늘며 암갈색이고 머리에는 2개의 돌기가 있으며 흰고치를 짓고 그속에 있다.

■ 생활사 : 1년에 5~6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나무틈 또는

벽면에 붙어 월동한후 5월상순에 활동을 시작하여, 기주식물의 잎 뒷면 조직속에 1개씩의 알을 낳는다. 부화유충은 엽육을 먹고 자라며 유충기는 약24일이다. 성숙한 유충은 가해부위에서 나와 잎 뒷면에 그물모양으로 실을 엮어 놓고 그위에 흰고치를 지어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 기간은 4일정도이다.

성충은 5~8월까지지는 매월하순에 우화하며 5회성충은 10월상순, 6회성충은 11월상순에 우화하여 월동한다.

■ 방제법 : 생활사 기간이 짧고 1년에 여러세대가 발생하므로 발생초기에 철저히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를 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1회 발생시기인 6월 초부터 굴나방약제를 2~3회 살포한다.